

# 道라는 것은 위대하고 당당하고 신비하고 도도한 것!

A 29면에서 계속

등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전에 어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그게 낮이 되면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뜨끈뜨끈합니다. 거기 드러누워서 밤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달랠니까, 누가 자리를 달랠까? 가깝니까, 오깝니까? 말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조용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하고, 근데 그 총총한 별이 나란 말입니다. 나와 둘이 아니요, 이 세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요, 내가 밭 없는 밭이 수없이 두루루 내 손이냐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아주 몸뚱이가 없어지는지 있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았던지.

그랬는데 야, 그리고 가니까 길 없는 길을 내 자성이 나를 가르치는데 야, 가다 보니까, "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어떤 것이 길인데?" "저기 저게 길이야." 하고 저기를 가리키는데 거기는 천아만아산이라. 거길 가리키는 거야. '좋아! 내가 일단 나를 버린 이상이야.' 미련통이지,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 산을 그냥, 그냥 드어 잡아선 거야. 밤이나 낮이나 허, 발도 옮기지 못하죠, 그 밤에는, 나무가 그냥 찻집 쌓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하면 산비둘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벌써 그냥 모두가 옮겨주는 거야. 하, 여기 낭떠러지라고 말이야. 그러

면은 낭떠러진 줄 알고 주춤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뱀이나 비둘기나 새나 전부 친구들이야, 모두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야 잠, 이 무르팍을 찢다니까. 이렇게 공감될 수가 없구나. 내가 말로만, 이 뜻으로만 안 거하고 실천을 이렇게 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서부터 뭐든, 지나가는 소의 눈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 그것이 내가 아닌 게 없기 때문이야. 죽으러 가면서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 말이야. "응, 너 아프지 말고 그 몸을 벗어." 그러면 벌써 그 영혼은 나하고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니 아냐, 죽이니 아냐. 우리 마취한 거나 마취까지지. 그러면 그냥 좋게 벗는 거지, 뭐.

공감까지도 익은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살짝 거지고 익지 않은 거는 벗기면 그 살이 그냥 쫘에 짹짹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릅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아프지 않고 내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다가 왜, 웃이 그렇게 헤치지 않았어도 부자는 좀 벗어나 놓지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다 헤지도록 입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좀 더 부유하게, 마음을 넓게, 물리가 터

지게, 지혜가 있게 이렇게 이 마음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다음에 또 만나면 실천에 좀 옮겨서 '야,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꼭 그러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전화를 하면 연락없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보, 빨리 들어와.' 하면 그냥 거기서 벌써 '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이력하곤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통신이라, 무전통신, 자력의 무전통신기. 그렇기 때문에 그 염마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 거리지 마세요. 다 거기다 맡기고 '네가,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딱 맡기고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 법인데 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팔만 사천 법문을 책에서만, 금강경

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이 요가를 한다 하는 것도 도(道) 안에 즉, 내 자동적인 심성을 깨달으면 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춤출 줄 몰라도 저절로 손이 돌아가면서 몸이 흔들려지면서 춤을 추게 되니 그것도 운동이요, 춤을 추니 남이 볼 때도 좋은 거요, 잘 추면 보기 좋으니 좋은 거요, 웃으니 좋은 거요, 서로 화목해지니 좋은 거요, 전부 좋지 않습니까? 춤뽀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상생활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손을 하나 이렇게 드는데도 내가 이거 운동하려고 강제로 막 그러면 이게 참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각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춤출 때도 춤도 스스로서 추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두 여러분 주인공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합니다. 또 지루하시면 그만두시고요, 지루하시면 그냥 우라...

대중 가운데서 스님이 지루하시지요, 크스님 아니, 나는 지루한 것도 없고 지루

지만 보시로 알지 마세요. 고아원에 찾아가서 물건을 갖다 준다 그래요. 그거 먹어치우면 고만이지, 뭐,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야 앞으로 깨달음이 생존해 나갈 때 기를 펴고 나가고 빛을 보는 거지.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예요.

질문자(남) 제가 다른 사람들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크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의심이 없고 그런데 도를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 뭐 그럴 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도를 얻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후세무민하는 그런 경우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도를 얻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걸 저희들이 말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크스님 그것에도 선원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이뤘다고 그냥 뭐 날뛰고 한 소식을 얻었다고 좋다고들 그랬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그때가 공부할 때라고 봅니다. 그

가락 하나가 안테나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 전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소식이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는 것이니 나를 내가 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라 발견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허허허. 한 소식 얻었다 말도 하지 말고, 단,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면 '발견은 했으나 지금부터 공부지, 뭐.' 이렇게 나가야죠.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회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속에 개구리를 건지려 들어가려면 내가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를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서 개구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간다면 개구리가 모두 달아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뱀 소굴에 들어가려면 뱀이 돼야만 뱀을 건질 수가 있고 또 짐승들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짐승이 돼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내가 사자가 돼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내가 호랑이가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들어 안 대답에 내가 내가 될 수 있고 호랑이가 될 수 있고 호랑이가 내가 될 수 있다면 무명만 쳐도 그것은 나로다가 바로 화해서 그냥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친 스님인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스님이 고양이를 들고 "똥당 서당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대담 한마디 해 바라. 너희가 대담 한마디 한다면 이것을 죽이지 않고 너희가 대답을 못한다면 내가 목을 칠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남친 스님이 칠 때에 그건 고양이 죽인 게 아니라 그도 반들로서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보였고 또 진실로서는 그 고양이의 허물을 죽, 무명을 쳐 줬고 그 고양이는 바로 그 당시에 자기가 된 겁니다. 그래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묘합니까? 참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가 앞으로 증득해서 우리가 갖는다면 늙고 젊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있어 가지고 저승에 들락날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써 설법을 끝내고 우리 앞으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참이 마음 도리에 감응이 돼 가지고 요다음에 '야 이, 생활에서 실천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고 한번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십시오.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로써 설법을 끝내고 우리 앞으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참이 마음 도리에 감응이 돼 가지고 요다음에 '야 이, 생활에서 실천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고 한번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십시오.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위 법문은 1987년 5월 24일 산호세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을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몸이 집이요, 법당이요, 그 안에 언제나 부처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을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 집안이 좋아질 텐데, 아픈 것도 나를 텐데 이라고 외우지 마시고 전체 이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끼리끼리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만 모이고, 허허허. 아냐, 생각해 보세요. 한번 휘이 둘러보세요, 안 그런가,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끼리끼리... (녹음 안됨)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설계가 나왔어.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 설계가 나오니까 또 집이 터졌어.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밥을 킁 갖다 냈는데 야,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신비한 거를,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를, 그 신비한 걸 몰라요. 우리가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하여튼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없이는 못 살아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를 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사서 쓴다, 바람을 사서 쓴다, 또는 불을 우리가 사서 쓴다, 알일이 이렇게 사서 쓴다면, 다른 것은 다 사서 써도 좋지만 이 공기만은 사서 쓴

하지 않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말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당당하고 참 신비하고 도도한 겁니다. 이 도리들을 모르시고 항상 '하 나님이시여, 주여, 부처님이여' 이라고 이름만 가지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기 이 몸이 집이요, 법당이요, 그 안에 언제나 부처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왔다' 죠, 뭐 지금 말로, 허허허.

그러니 우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얼마쯤 진전이 있다. 우리 저 선원에서는 진전이 많 습니다. 남녘을 막론해 놓고, 지금 대학원 나온 학생은, 지금 대학원 다니는 학생하고 둘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폐병 없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 그 사람더러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가 건져 주는 거죠. 그래서 낮게 해 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를 해도 자신으로서의 얼마나 보람 있는 애입니까? 우리가 물질 주는 것도 보시지마는 뜻으로써 무주상 보시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말해 주는 것도 보시요. 그러니 세 가지가 다 보시니까 이 보시를 그냥 물질로 주는 한 가

게 한 소식이 아니라 내 스승을 내가 발견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내 스승을 내가 발견했을 때는 한 소식 얻었다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렵더라. 두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한 번 나를 발견했으면 바로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자기가 공부를 그때서부터 해야 할 단계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스승이 자기를 다지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으로도 나오고 또 좋은 곳도 이렇게 환상으로 나옵니다. (녹음 안됨)

놔서 그때 다시 보임을 해서 숙달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들어 안 걸 알게끔 다 숙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들어 안 깨달아 너와 나와 나뉘다 이거야.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될 수 있는, 일체 만물이 그냥 내 한생각으로 한꺼번에 군사를 수만 명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명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뉘어 있어만 그때에 열반경지에 이른다라고 봅니다.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니 그 세 단계, 단계 없는 단계를 다 넘어서 우리가 그대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이 우주 전체, 아까 이안테나 말했죠. 이 손

## 서울 도천사 시민선원

# 하안거 결제대중 모집

- 모집인원 \_ 00명
- 모집기간 \_ 하안거 결제전까지 (수시 입방가능)
- 선원위치 \_ 2호선 잠실역 7번출구에서 5분거리 (향군회관 옆, 장미상가 건너편) 더샵 스타파크 A동
- 정진시간 \_ 새벽 4시 ~ 저녁 10시
- 문의 \_ 02) 415-3696

### ■ 수요참선법회 ■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안스님의 참선 법문으로 올바른 수행방법과 함께 불교의 핵심사상을 정립시켜 드립니다.
- 동참금 없이 무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도안스님은 경허~한암~고승 대선사로 이어진 부처님의 정법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도천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 더샵 스타파크 A동 204호(법당), 502호(시민선원)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佛記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 대한불교조계종

# 운문사

회주 명성  
강주 일진  
주지 진광

사부대중 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